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아파트 특별 공급

전북중기청, 5년 이상 근로자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 우선 대상자 추천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효천지구(A-2) 우미린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클럽업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우미린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2 블록이며,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A형 67세대, 84㎡B형 31세대, 84㎡C형 14세대 등 총 112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도내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안순호 청장 직무대리는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연임 확정



전북은행은 지난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임용택 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임용택 은행장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취임 이후 지역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내실을 다져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용택 은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토러스투자전문(주) 대표, 토러스벤처캐피탈(주)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

먼트 파트너스(주)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쿼티(주)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전북은행장에 선임됐다.

임 행장은 30여년 동안 증권, 캐피탈, 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통해 금융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분석력,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년동안 전북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PCBank)을 인수하여 수익기반을 다변화 시켰다.

한편 임용택 은행장은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전북은행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제12대 전북은행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 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사료용 옥수수 성공적 논 재배 '눈길'

농진청, "쌀 수급 조절·수입 품사로 대체효과 기대"

논에서도 사료용 옥수수가 성공적으로 재배돼 눈길을 끈다.

농촌진흥청은 초과(과잉) 생산되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부족한 품사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오는 31일 전남 강진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벼 대체 사료작물 수확 연시회'를 연다.

논에서 벼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쌀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수입 품사로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목표인 품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삭기후에 따른 식량난을 해결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해 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벼 대체 작물로서 같이농가(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되는 장점이 있다.

옥수수는 축산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수량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담근먹이(사일리지)를

만드는 데 알맞지만, 습기에 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논에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잘되는 땅을 선정하고 장마철이나 큰비에 잠기지 않도록 물 빼는 길(배수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논에 적응성이 높은(습해에 강한) 품종(광명옥)을 선택하고, 파종 후에 눌러주며 누렇게 익을 때(황숙기)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시회에는 실제 수요자인 같이농가와 축산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농가들이 사료용 옥수수의 논 재배기술을 배우고 수확장

면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재배 성공의 확신을 갖고 옥수수 재배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배지는 17헥타르로, 헥타르 당 50여 톤 이상의 수확량이 기대된다. 또한, 밭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가뭄피해를 덜 받아 수량과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김인호 과장은 "벼 대체 사료작물의 안정적 재배확대로 쌀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재고 쌀의 보관(저장) 비용이 절감되며 같이농가에는 새로 소득원이 됨으로써 농가 전체 소득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추석맞이 지역상품 판매 촉진 회의 개최

전북우정청은 29일 라이브POST홀에서 도내 17곳의 생산농가와 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카카오퍼머 등 외부파트너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지역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주농협 최명호 팀장은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 배, 복숭아 등 2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우체국 POST PLUS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 우리지역 상품의 매출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우체국쇼핑·달팽이장터, 창구판매를 통해 전북지역 상품의 판로개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4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추석에는 60여명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 농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가소득증대 위한 상호금융 교육

전북농협은 29일 지역본부 상생관에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농·축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호금융부 최용현 부장은 농·축협 상반기 상호금융은 여수신 500조 달성으로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에 맞는 역할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행복이음패키지 상호금융 상품 출시와 사잇돌증금리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확대, NH팍뱅크 고객 100만 돌파와 상호금융권 최초로 펀드 판매를 개시해 서민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확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신 조달 및 대출 운용으로 신용손익을 관리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공사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지역개발사업 20권역에 대해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전문가 합동으로 공사현장의 위험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새마을사업, 농촌자립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20권역에 대한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각 사업별 연말까지의 예산집행 처리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본부는 농어촌 낙후마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 전북지역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준재 본부장은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 관리에 직원역량을 모아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추석 선물상담팀 운영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감에 따라 '추석 선물상담팀'을 운영한다.

공단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선물상담팀'은 백화점 직원 2인1조 구성, 총 3개조로 활동하며 기업체 정답관리를 통해 추석 특수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31일부터

8층 상품권 판매소에서 추석 패키지 한정판매가 진행되며, 상품권을 500/1,000/1,500/3,000만원 패키지로 구매하면 총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추석선물에 관한 상담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선물상담팀 사무실 ☎ 063-289-3745~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